

【국어 산책】

영어 열풍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김영명

한글문화연대 대표, 한림대 국제대학원장

1

중국은 1842년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저서 홍콩을 조차지로 할양했다. 그 뒤 영국 영토가 된 홍콩은 중국 혁명과 상관없이 영국 자본주의의 관문으로 맹활약을 하다가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상업 금융 첨단 도시를 가지게 되었다. 영어가 공용어여서 홍콩 사람들은 중국어 뿐 아니라 영어도 잘 한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려고 하자 홍콩의 부자들은 너도나도 미국이나 캐나다로 달아났다.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였다가 제2차대전 뒤에 말레이시아와 함께 독립했다. 말레이 연방을 만들었다가 쫓겨나서 도시 국가로 남았고, 역시 상업 금융 전문 도시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식민지 출신답게 영어도 잘 하지만, 이는 엘리트에 국한된다. 중국어, 말레이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서울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지자 독립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지라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평양과 선을 긋고 자기들 식으로 국가를 만들고 서울이 '서울'이

되었다. 지배층은 일본말을 잘 했는데 일본이 저 버리는 바람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가 미국 식민지였더라면 하고 한탄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한 우리 ‘우국지사’들은 이제라도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싱가포르에 준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 주면 서울이 홍콩, 싱가포르처럼 세계 자본주의의 관문이 되지 않을까 가슴이 설렌다. 그래서 ‘안녕 서울!’(부끄러운 영터리 영어 ‘하이 서울’)을 외치고 영어 상용화를 피하고 ‘잉글리시 타운’을 조성하려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영국이 총과 대포로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가며 빼앗았는데, 서울은 아무런 피 흘림 없이 너무나 부드럽게 미국의 손에 넘어가려는 중이다. 일제에 나라를 바친 사람들의 후손답게 앞장서서 서울을 바치려는 무리들이 지배층이기 때문이다. 계획에 따르면, 잉글리시 타운은 영어가 공용어다. 한국어와 함께 복수 공용어가 아니라 유일한 공용어다. 한국어를 쓰면 안 된다. 화폐도 달러를 통용시킨다. 학교도 영어로 가르치고 병원도 영어로 진료한다. 물건도 영어로 사고 영화도 영어로 본다. 한마디로 미국이다. 다른 외국 사람들도 들어가 살긴 하겠지만, 모두 미국의 아류들이다. 법은 미국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다. 경찰도 아마 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재판관도, 관리도 모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아류인 싱가포르에서 수입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중국,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나라 안 뺏기려고 피 흘리며 싸운 것이 너무 우습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았을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선견지명이 없었을까? 잉글리시 타운, 경제특구 모두 자발적 식민지화의 징표다 그것이 ‘글로벌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2

미국은 제2차대전 뒤에 세계를 소련과 나누어 지배했는데, 소련이 망하

자 ‘외로운’ 제국이 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이전의 제국주의와 달리 영토 획득이 아니라 군사 기지를 통해서 작동한다고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이 최근 저서 <제국의 슬픔>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친 군사 기지의 숫자는 비밀인데, 공개된 것만 800곳에 가깝다고 한다. 한국은 영토 면적에 비해 미 군사기지가 매우 많은 편이다.

미 군사기지는 물론 미국의 군사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밖에도 많은 문화-경제-정치적 구실을 한다. 불평등한 행정 협정들을 통하여 미군들은 치외법권을 누리고 저급한 상업 문화를 퍼뜨린다. 정치적으로 주둔국을 미국의 영향 아래 두는 구실도 톡톡히 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미 군사기지의 현황과 구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 문화 기지를 통한 세계 지배도 추가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제국의 한 특성은 자신의 보편성을 내세우고 다른 문화와 지역에 자신의 ‘보편적’ 문화를 강요하는 것인데, 에마뉘엘 토드의 ‘제국의 몰락’을 보면 미국이 한편으로는 보편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 매우 편협하고 국지적인 이중성을 보인다고 한다. 한마디로 로마제국이나 중화제국과 같이 보편적 지배를 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드는 그래서 이라크 침공 같은 미국의 군사 공세는 미국의 힘의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허약함의 징표라고 한다. 원래 속이 허한 사람이 겉으로 설치듯이.

어쨌든, 군사적으로 허하든 아니든, 미국의 문화적-상업적인 침투는 날로 심해지는 것 같다. 미국은 군사기지뿐 아니라 언어 기지를 통해서도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영어 전파는 공사 구분 없이 영-미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름 아래 더 기승을 부린다. 그런데 이러한 영어 기지 건설에는 반드시 이에 호응하는 기지국 지배층이 있게 마련이다. 군사 기지와 마찬가지로 영어 기지도 기지국 지배층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군사기지도 저급한 상업 문화 수출의 통로가 되지만, 영어 기지는 문화와 언어 침투가 존재 이유 그

자체다.

한국은 미국의 제일 가는 군사 기지로도 모자라서 이제 자진하여 영어 기지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 역시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군사 기지가 치외법권 지역이듯이 영어 기지도 치외법권 지역이 될 것이다. 한반도 남쪽 축을 관통하는 경제 특구들과 합쳐져서, 영어 기지들이 한국 전역으로 퍼져 나갈 소지도 크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남쪽은 미국의 군사 기지, 경제 특구, 영어 기지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제 초콜릿을 할로 할로 하며 손벌리지 않고도 영어로 주문하고 달러로 지불하며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게 된다. 정말 역사는 발전하는가 보다.

3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어 상용화에 대해 다음 미디어에서 여론 조사를 했더니(4월 말) 7 대 3의 비율로 반대가 많았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 관리들은 영어 상용화에 대한 신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왜 이런 괴리가 있을까? 그것은 서울시 관리들이 시민이나 국민 일반의 뜻과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아니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이 가진 자의 일부로서 가진 자의 이익과 취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17대 총선을 통해 좀 나아졌다.) 이들 중 가난한 집 자식들도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이들은 가진 자의 생활을 누린다. 대체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고시에 합격하거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고위 관료직에 오른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 중상류층 인사들이고 국외 출장을 많이 하고 외국 관료나 기업인 들도 자주 만난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외국인(이라지만 주로 미국인)들을 선망하고 그들 앞에서 기죽는다. 반면 민원인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경멸을, 좀 나은 경우에는 연민을 느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외국-선진국, 서양, 미국의 동류 관료나 기업인들과 관심, 생활 양식, 사고방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서민 대중들과는 이 모두에서 괴리를 느낀다. 한마디로 그들은 외국의 비슷한 계층 사람들과 정신, 물질 모두에서 더 가깝지 한국의 서민 대중들과 더 가깝지 않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국제 일류 도시’도 결국 이러한 그들의 국제 연대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방문하거나 교류하는 미국 도시들과 그것을 충실히 재현한 싱가포르가 그들에게는 이상의 도시다. 그래서 영어를 위주로 해야 하고 외국인, 즉 미국인들이 생활하고 기업하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서울 보통 시민들의 편안과 행복은 안중에 없다. 이렇게 서울을 미국의 3류 도시 또는 잘해서 2류 도시로 만들면 미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뿌릴 것이고, 그러면 한국 국적의 2류 ‘국제인’들이 이익을 볼 것이고, 대다수 서민 대중들도 떨어지는 국물을 조금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화의 이득이고 국제 도시 서울의 청사진이다.

그러니 이들을 꼭 나쁘다고 나무랄 필요는 없다. 이들의 경력과 삶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미국인과 자주 만나거나 그것을 동경하니, 영어의 필요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도둑놈에게는 경찰만 보이고, 의사에게는 환자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평생 영어 한 문장 말할 필요 없이 늙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런 삶은 자신의 삶과 상관없으니 아예 관심도 없다. 자신의 배경이 만들어 낸 지독히 근시안적인 안목과 그 안목이 갖다 주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 그들은 오늘도 서울과 대한민국을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두 나라와 국가의 이름으로!

그러니 이들을 미워하지는 말자. 모두 환경의 산물이다. 환경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애초에 관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결국 소수 가진 자의 횡포에 대항한 대다수 못 가진 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 싸움은 계속되고 조금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언어 문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아마 본격 싸움이 될 만큼 굽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 같은 선각자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한다.

4

영어 마을을 만들고 영어 상용화를 하면 서민 대중의 자녀들이 값싸게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이를 추진하는 관리들이 그렇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영어 마을 등 영어 중시 정책이 결국 영어 광풍을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시에서 영어 교육을 해준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영어 과외를 안 한다? 아니면 시가 과외 선생만큼 영어 교육을 ‘잘’ 해 줄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없는 수작이다. 변호사 비용 댈 수 있는 사람이 국선 변호인 쓰는 것 보았는가?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과외’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과외비 있는 집에서 자식들을 과외 안 시키는가? 결국 영어 진흥책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영어 수업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벌릴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부추기는 영어 열풍이 그리잖아도 정신병 정도에 이른 영어 사교육 열풍에 더 기름을 붓는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영어 진흥책이라는 자치단체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거나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결국 가진 자의 횡포를 더 심하게 만들 것이다.

왜 가진 자의 횡포인가? 필요하지 않은 영어를 모두에게 강요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지배를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보다 영어 공부할 기회와 자원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할 수밖에 없다. 다른 공부 분야도 돈 있는 사람이 더 잘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 가지만, 특히 어학은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정비례한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논 팔고 소 팔아 서울의 일류 대학으로 가고 그것으로 신분 상승을 했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 여기에 영어를 신분 상승을 조건으로 내걸면 신분 상승의 철조망을 더 확실히 칠 수 있다. 돈 없는 자가 상층계급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 간다. 마치 옛날의 양반 사대부들이 한문을 신분 구획의 도구로 삼았듯이 지금 사회의 상층부는 영어를 그 수단을 삼아 가고 있다. 영어 공용화를 하면 서민 대중도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먹고살기에 바쁜 돈 없는 집 자녀들이 시나 군에서 마련하는 영어 교실에 나가 보았자, 도저히 신분 상승에 필요한 영어를 익힐 수 없다. 식민지 출신의 영어 공용국에서 지금도 보고 있는 현상이다. 논리와 실제 모두가 그렇다.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면서 가진 자들은 신분과 지위에 대한 위협을 점점 더 느낀다. 서민 대중의 학력도 높아져서 이제 우민화 정책으로 이들을 조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수단이 영어다. 영어를 내세우면 확실히 위에 서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을 누를 수 있다. 그러니 영어를 강요하는 것은 가진 자의 횡포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귀족이 지배하는 귀족정이다. 얼굴만 민주주의이고 몸과 골 모두가 귀족정인 일종의 혼합 정체다. 사실 그들은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런 체제를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이 횡포에 대항하여 민주 사회를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